

5·18민주화운동 25주년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5·18민주화운동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상처로 지금 이 순간까지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노와 슬픔을 승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위대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은 승리의 역사입니다.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폭력도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시민들의 열정만은 꺾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용기와 희생은 민주화의 불꽃이 되어 1987년 6월항쟁으로 타올랐고, 마침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은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상자를 치료하고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약탈도, 방화도, 보복도 없는, 그야말로 민주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대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손색이 없는 당당한 민주주의를 하게 된 토대에 바로 광주가 있었음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국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주체로 등장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상에 걸맞게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폭력과 공작으로 경쟁을 무력화시켰던 독재의 역사는 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 규칙에 따라 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정적 대립을 뛰어넘어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의 숭고한 뜻을 오늘에 되살려 냅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선진

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런 역사를 물려 줍시다.

5·18 영령들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